

전북 인구감소 극복 ‘총력’

도, 8개 금융기관과 민·관 실천협약 체결 일·가정 양립 사내 분위기 조성 등 적극 협조

전북 인구감소 대응에 도내 금융기관들이 힘을 합친다.

전북도는 18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전북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신한중앙회 전북지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 등 도내 8개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구늘리기 민관 실천협약 제3호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기관과의 협약 체결은 전라북도의 인구감소 대응에 민관이 서로 협력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4대 종교단체를 시작으로 5월 경제단체에 이은 세 번째 협약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전라북도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에

전북도와 인식을 같이하며, 도의 인구 관련 각종 시책 추진과 도민들의 인구 인식개선에 상호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등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계의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도내 각 지역에 많은 영업점을 갖고 있는 전북은행, 농협, 신한, 새마을금고 등은 인구 관련 금융상품 출시를 적극 검토하고, 여자 종사원이 많은 금융기관 특성상 육아휴직 활성화로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도는 인구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금년에 인구정책혁신팀을 신설해 '전라북도 인구정책 5개년 종합대책(2018~2022년)'과 2019년 실행계획 수립, 조례 제정 및 민관위원회 구성

(지난 2월) 등 인구의 종합·체계적 추진기반을 갖추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인구인식 개선과 관심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인구교육, 정책아이디어 및 포여 공모, 인구의 날 연계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향후 기존 인구 관련 시책의 진단과 새롭게 제안된 아이템에 대해 전문가, 시군, 도민 정책참여단과 함께 '전북형 인구정책 브랜드 사업'을 발굴·선정해 선택과 집중에 통한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구감소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고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만큼, 전라북도 인구정책 및 인구인식 개선 활동 등에 민·관·단체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실천 확산을 위해 파급효과가 높은 교육기관(대학교, 교육청), 언론사, 여성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약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포천 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하는 이낙연 총리
내려진 18일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돼지농장 인근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내 최고 수소융복합산업 거점지역으로 도약

내달 1일부터 이틀간 부안서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개최

제16회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이 '재생에너지, 수소를 품다'를 주제로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독일, 캐나다, 일본, 인도 등 국외 전문가와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해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소규모전력망 등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포럼 기간 총 30여개 세미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최신 지식·기술·정보 교류와 분야별 사례 공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태양광 분야에선 국내 수상·영농형 태양광, 태양광 소재부품 연구동향 등 주제발표가 있으며,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전략과 프랑스·일본·중국 등의 해외 기술동향이 발표된다.

마이크로그리드 분야는 그린에너지와 ICT산업과 마이크로 그리드와 그린에너지 연계 핵심기술 등이 발표된다. 또한 도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알리고,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홍보·전시회를 한달간(10. 25~11. 24)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도에서 추진중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전주-원주 수소시범도시 공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정책을 알리고, 도민과 전주 방문객에게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중심지

로 도약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수소융복합실증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국제사업의 전북유치 당위성에 대해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호 도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신재생에너지는 전북도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전북의 산업을 이끌어 갈 것이며,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국내 최고수준의 수소융복합산업 거점지역으로 도약하겠다"며, "전북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번 포럼과 홍보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보·전시회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전주시, 완주군이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한다.

/김진성 기자

경량 개정 내용 등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청렴 관련 정책들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강사로 5년 연속 '기업교육 명강사 30인'에 선정되어 중앙부처 등 여러 기관에 강의를 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분야의 스타강사인 정승호 재미있는 교육컨설팅 대표를 초빙해 진행됐다.

전북도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해산 도 감사관은 "정부도 부패인식지수를 52위에서 20위권으로 도약을 위하여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하고 있다"며, "지금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남북도로 공사비 200억 추가 확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12.7km) 건설사업에 2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발청에 따르면 이번엔 확보된 예

산(목적예비비)은 구조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으로, 하반기 경제협력 보강 추가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무회의 의결(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새만금개발청은 남북도로 1단계 공사의 목표 누적공정율을 39.8%에서 43.9%까지 상향시킨다는 방침이다.

소병철 개발청 기반시설과장은 "이번에 확보된 추가 예산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해 고용위기지역의 고용 증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청탁금지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

전북도,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전라북도가 전 청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도는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직원들에게 '공심은 공직자의 변함없는 제1원칙'을 강조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 9월 18일과 10월 10일에 청탁금지법 및 반부패·청렴 교육을 시행하고, 전 청원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년간 발생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와 공무원 행동

규칙 개정 내용 등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청렴 관련 정책들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강사로 5년 연속 '기업교육 명강사 30인'에 선정되어 중앙부처 등 여러 기관에 강의를 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분야의 스타강사인 정승호 재미있는 교육컨설팅 대표를 초빙해 진행됐다.

전북도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해산 도 감사관은 "정부도 부패인식지수를 52위에서 20위권으로 도약을 위하여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하고 있다"며, "지금

까지는 관행이라 불리던 부패 행위들과 도민이나 부하 직원에게 해왔던 갑질 행위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고 바뀌어나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지지받는 청렴한 전라북도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전북을 실현하기 위해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민원콜백 서비스',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청렴마일리지 운영',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등 24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한일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내년 총선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집중단속하고 공직자의 직무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완주에서 최고의 酒人을 찾습니다”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가양주&안주상 콘테스트 개최 누구나 참여 가능… 전시·시음행사·포토존도 운영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이 가양주&안주상 콘테스트를 연다.

18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은 내달 26일 제2회 가양주&안주상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11월 2일에 있을 '술익은 날, 한잔' 행사의 주제프로그램으로 완주의 최고 가양주를 빛는 사람과 최고의 술맛을 더하는 안주상을 내는 사람을 부문별로 미리 선발한 것이다. 당일 전시와 시음(식)행

사를 진행하게 된다.

술박물관 제2회 가양주&안주상 콘테스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신청서는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또는 완주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접수는 이메일(14minsun@hanmail.net)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콘테스트에서 선발된 최고의 가양주에 어울리는 안주상과 최고의 안주상에 어울리는 가양주는 천생연분

혼례상으로 연출해 '술익은 날, 한잔' 행사의 포토존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고 주인(酒人) 1등(1팀)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함께 완주군수상을 주인(酒人) 2등(3팀)은 상금 50만원과 완주군수상을, 주인(酒人) 3등(5팀)에게는 상금 30만원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장상을 수여한다.

전영선 문화관광과장은 "가양주와 안주상 콘테스트는 술을 주제로 한 대표 프로그램이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술의 역사와 가치를 올바르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술박물관 홍보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